민주 송영길 전 대표, 2021년 전당대회 과정 돈봉투 의혹에

"모든 정치적 책임지고 탈당"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2일 지난 2021년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가 오고갔다는 의혹에 대해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귀국 일정과 관련해서는 24일 오후 3시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겠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당연히 민주당 상임고문에서도 사퇴한다.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당원도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히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게 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대응해나가겠다"며 "2년 전 전당대회와 관련해 돈봉투 의혹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력도 계보도 없는 저 송영길의 당선을 위해 자신의 돈과 시간, 정성을 쏟아 자발적으로 힘을 모아준 의원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률적 사실 여부에 대한 논쟁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모든 책임은 제게 있다"며 "저를 도와준 사람을 괴롭히는 수많은 억측과 논란에 대해서도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당당하게 돌파해나가겠다"고 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돈봉투 의혹' 관련 프랑스 파리 현지 기자회견이 22일 오후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법률적 사실과 별개로 모든 책임 제게 있다 검찰, 주변인 괴롭히지 말고 저를 소환해달라"

본인이 부동산 의혹으로 민주당 의원 12명을 출당 권유 내지 탈당 조치한 것을 언급하며 "같은 원칙은 제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의 누를 끼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또 "제가 귀국하면 검찰은 저와 함께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저를 소환해줄 것을 부탁한다"며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귀국 일정과 관련해서는 "바로 귀국하겠다"며 "현지시각으로 내일(23일) 저녁 8시 아시아나 비행기로 출국해 오는 24일 오후 3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해 상황을 파악한 뒤 바로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당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하겠다. 민주당은 단순한 정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민생과 평화를 지키는 보루"라며 "민주당은 제 탈당을 계기로 모든 사태에 수동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적극적이고 자신있게 대응해 국민의 희망으로 더욱 발전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시설 설치 협약 지난 21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새만금청·국방과학연구소 업무협약 체결식에 김관영 도지사와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 등 참석자들이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시설 설치 및 관련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업무협약식을 갖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 김관영 도지사)

"천마지구 도시개발, 행정절차라도 추진을"

최명권 전주시의원, 5분발언서 "개발 앞서 구역 해제, 사유재산권 행사할 수 있어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행정절차만이라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난 21일 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제기됐다.

최명권 전주시의원은 이날 본회의 5분발언에서 "전주대대 이전사업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더 이상 표류하지 않고 속도감 있고 내실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35사단 부대를 지난 2014년 임실군으로 이전하기까지 23년이 소요됐고, 2018년 도도동으로 항공대대를 이전하기까지는 2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며 "전주대대 이전은 여러 조건부 합의와 재승인 절차를 거치면서 최종 조촌동으로 이전이 결정됐고 현재 이전지역 주민들과 지역발전사업 등을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적절한 지원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면서 또한 "빠른 시일 내 사업을 기대하며 사실상 재산권 행사를 포기한 송천·호성동 주민들을 위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지난 21일 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최명권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천마지구 도시개발에 앞서 천마지구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하고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천마지구 도시개발은 전주대대 이전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착공이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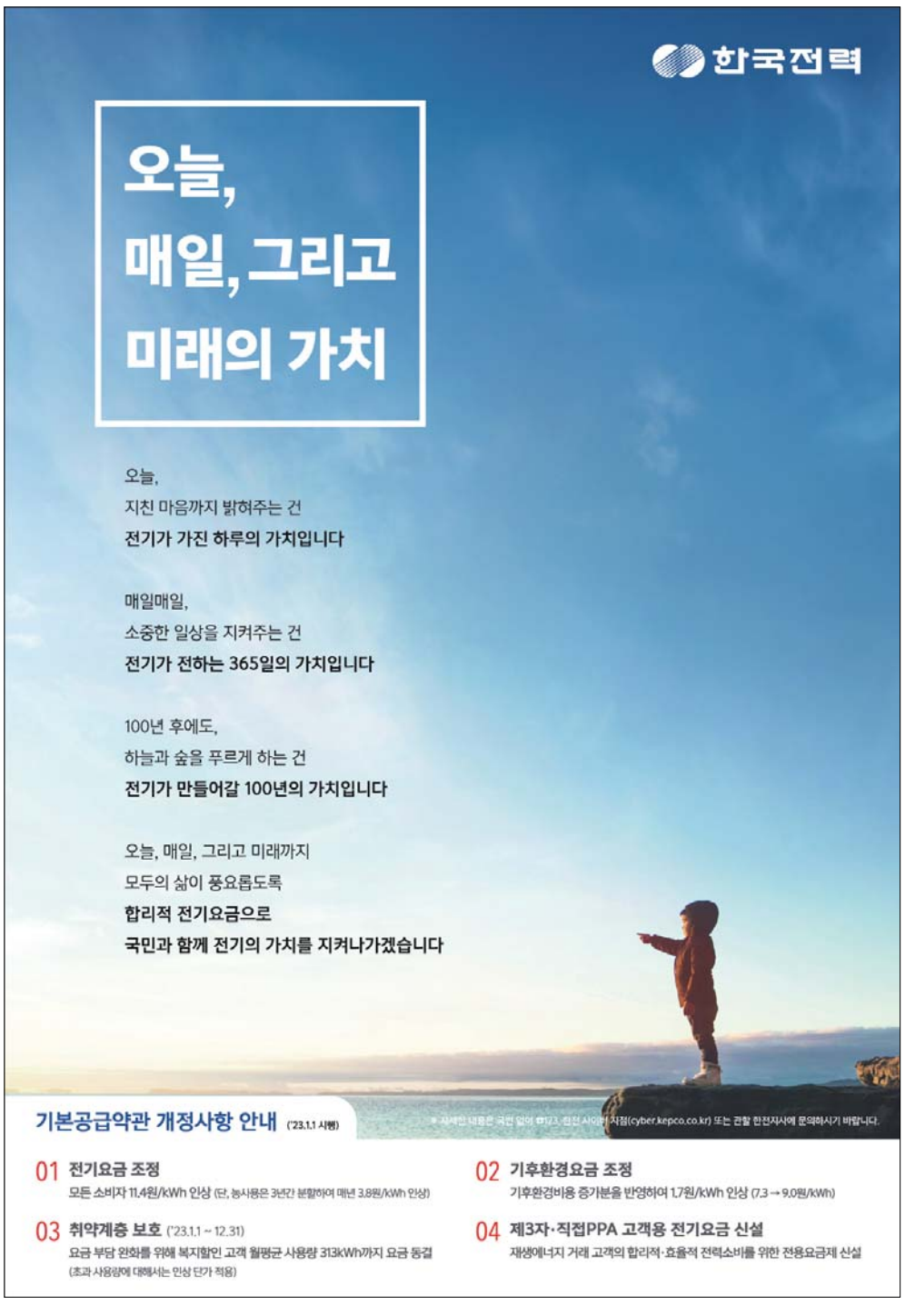
게다가 "지난 3월에 개최된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주민과의 합의사항 미이행 등으로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이 부결됐다"며 "송천·호성동 주민들은 더 기다릴 수 없다"고 했다.

최 의원은 "송천동 일대 천마지구 개발사업은 주변에 전라선 철도, 고속도로, 국도 26호선(동부대로) 및 백석로가 위치하고 있다"며 "주변 지역과 연접한 교통의 요충지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그는 "㈜에코시티측이 개발하게 될 부지는 전체 개발면적의 40% 정도지만 전주대대 이전사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전제하에 사업계획을 수립했다"며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절차만이라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김영태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 활용도 미흡"

정영미 익산시의원 "익산시 차원 지속 관심 필요"

익산시 월성동에 위치한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의 활용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인증으로 메르스와 같은 고위험 인수공통병원체에 대한 연구 수행이 언제든지 가능한 우수한 시설로써 익산시의 관심이 요구됐다.

익산시의회 정영미 의원은 지난 19일 오후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방문하고 시설 현황 파악과 동시에 연구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연구진들은 근무 환경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와 익산시를 비롯한 행정에서의 태도는 무관심이었다는 목소리를 냈다.

실제 연구소는 교육부로부터 공과금과 전북대에서의 운영비 지원이 전부인 가운데 익산시의 재정 지원 불가라는 문제가 연구기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

A 연구원은 "연구원들이 근무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다"전제한 뒤 "주변 인프라가 부족해 직원들이 외부 출입보다는 연구소 내에서만 생활할 수밖에 없고, 숙박시설이 없어 먼거리를 출퇴근 해야 하는 번거로움 있다"고 토로했다.

또 "연구소 인근 버스승강장이 없어 상당히 불편하다"면서 "연구소가 만들어질 때만 상당한 관심을 보이다가 익산시의 관리 기관이 아니다보니 무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연구소가 오랫동안 지속되려면 행정을 비롯해 연계 기관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정영미 의원은 "오래전부터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것만 알았지 시민들은 연구소에 대한 중요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연구소 건물은 동양 최대라도 불리울 만큼 훌륭한 시설을 갖췄음에도 정부 지원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유치 당시 개념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교수들의 열정과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이곳에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아시아 최대의 연구소라는 명성은 사라질 것"이라며 "연구진들의 일에 대한 행복도를 위해서라도 지자체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피력했다.

한편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는 지난 2013년 익산시 하나로 820-120 부지에 8만4,430㎡ 규모로 총 사업비 435억원을 들여 완공됐으며, 국내 유일의 소, 돼지 등의 동물실험이 가능한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을 갖췄다. /익산=이재춘 기자

정읍시의회 임시회 마무리… 건의문 등 채택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는 지난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제283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황혜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지원책을 마련을 역설했고, 오명제 의원은 신태인 파크골프장 경관 조성 등을 제안했으며, 이도형 의원은 X자형 횡단보도 적극 확대를 촉구했다.

안건 심의는 '2023년 상반기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함께,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상길) 소관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정읍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 소관으로 서향경 의원과 이도형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정읍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향경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명예 환경감시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상철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과 '정읍시 자원순환 기본조례안', 고성환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 소관으로 김석환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 등 2건을 가결했다.

이어, 이만재 의원 대표 발의 '신동진 벼 정부 매입 제한 및 보급 중단 철회촉구 건의문'과 이상길 의원 대표 발의 '동학농민혁명 기념곡 제정 촉구 건의문', 한선미 의원 대표 발의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정읍=김대환 기자